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3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3만 8천 명 증가하여, 추세적으로 증가폭이 축소
 -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4.9%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
- ◎ 3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확대
 - 40대 취업자 감소 확대
 - 임시직 증가세 둔화 및 일용직 증가로 전환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농업 취업자 수 감소 지속
- ◎ 비경제활동인구는 10만 7천 명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요인은 '쉬었음'임
 - 60대 이상 연령대의 '쉬었음'의 증가가 가장 크지만, 20대의 증가도 큰 편임. 그러나 20대 증가는 주로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이상과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36만 8천 명 증가(50대

15만 8천 명 증가, 60세 이상 21만 명 증가)

- 청년층 취업자 수는 청년 인구 감소(2만 9천 명)에도 불구하고 3만 9천 명 증가. 20대 초반(20~24세)의 고용 증가는 주로 재학생들에서 발생함. 20대 후반의 고용률은 남녀 모두 60%대 후반에서 다소 하락
- 30대는 매우 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 증가로 취업자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
- 40대는 인구 감소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취업자 수 감소. 고용률이 이미 78%(남성은 91%)를 넘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고용률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40대 취업자 감소는 주로 임시직 감소에 기인함.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

◎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이 계속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는 반면, 임시직 취업자 증가는 5만 명 미만으로 떨어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세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지속

- 상용직은 33만 1천 명이 증가. 상용직 증가는 50대(13만 1천 명), 60세 이상(11만 1천 명)이 주도하고 있지만 30대의 증가(6만 5천 명)가 눈의 띄. 업종별로는 제조업(16만 2천 명), 보건복지업(7만 7천 명)이 주도하였음
- 임시직은 4만 3천 명이 증가. 15~24세(8만 7천 명) 및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감소(8만 명)가 두드러짐.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4만 8천 명), 건설업 등이 임시직 증가를 주도. 도소매업 임시직은 변동이 없음
- 일용직은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업을 위주로 2만 8천 명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 7천 명 증가. 건설업(2만 1천 명)과 음식·숙박업(2만 4천 명)이 증가세를 주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7천 명 감소. 40대에서 감소(4만 7천 명)가 큼. 농림어업(5만 5천 명), 음식·숙박업(3만 2천 명), 개인서비스업(1만 9천 명)의 감소폭이 큼
-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5천 명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다소 둔

화. 건설업 취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

- 제조업은 11만 6천 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상용직(16만 2천 명)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일자리는 대기업(7만 8천 명)에서 많이 증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6만 6천 명)에서 취업자 증가가 큼
- 서비스업은 19만 7천 명 증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5세 이상(25만 6천 명) 여성(19만 3천 명)에서 주로 증가. 주로 상용직(16만 5천 명)에서 증가하였으며, 임시직(4만 9천 명)의 증가는 축소됨.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19만 2천 명)에서 증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7만 4천 명), 음식·숙박업(6만 명), 보건복지업(8만 2천 명)에서 주도. 그러나 금융보험업(6만 7천 명), 공공행정(5만 7천 명)이 확대.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일어났는데, 업종별로는 보험업(4만 5천 명)에 특히 집중됨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로 감소폭 다소 축소. 특히 60~64세의 감소 폭 축소가 눈에 띈
- 건설업은 7만 9천 명 증가. 중소기업 사업체(8만 3천 명)에 고용된 55세 이상 남성(9만 4천 명)이 주로 증가하였음

◎ 입직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직은 크게 감소

- 입직은 일용직 위주로 9만 6천 명 증가
- 이직은 7만 9천 명 감소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1월 명목임금(3,349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8.8% 하락. 실질임금은 9.6% 하락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528천 원)은 정액급여(3.6%)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설연휴가 2월 중순인 영향으로 특별급여(-45.4%)가 크게 하락하면서 9.4% 하락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1,422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 ◎ 2014년 12월 근로시간(180.1시간)은 근로일수 증가(21→22일)로 전년동월대비 3.2%(5.5시간) 증가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소정근로시간 증가(3.2%)로 초과근로시간은 소폭(-0.8%) 감소
 -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5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 한편 2014년 평균 근로시간(175.0)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20→21일)로 전년에 비해 3.6% 감소
 -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180.0시간)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 소정근로시간은 4.2% 증가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0.8% 감소
 -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123.0시간)은 1.9% 감소